



## 스파이런트, 삼성-LG에 통신기기 테스트 자동화 제공

단말기, 통신 장비 테스트 기간 최대 50%까지 줄여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통신 장비, 단말기 테스트 분야 전문업체 스파이런트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진행 중이다.

스파이런트는 19일 싱가포르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2009 넷이벤트'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통신기기 테스트 자동화를 추진 중이며 연내 자동화 솔루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런트 글로벌 서비스 총괄 앵거스 로버트슨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조작하지 않고도 테스트가 가능한 자동화 솔루션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제안 중"이라며 "반응이 좋아 빠른 시일내 한국 시장에 솔루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런트의 테스트 자동화는 장비, 단말기 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함께 실시한다. 단말기 업체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서비스 업체에 전달하고 서비스 업체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단말기 업체에 이를 전달해 테스트 기간을 줄인다.

스파이런트는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 팡파레와 손을 잡았다. 테스트 장비는 스파이런트가 공급하고 팡파레는 테스트를 위한 통합, 설정,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여러 장비를 업데이트 하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라우터부터 시작해 스위치, 무선 기지국, 휴대폰까지 테스트를 제공해 전체 네트워크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팡파레 마케팅 부문 부사장 데이비드 게링거는 "지난 주 한국 시장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만났는데 테스트 자동화에 관심이 많다"며 "서비스 업체인 SK텔레콤, KT, LG텔레콤과도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 프로세스와 테스트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테스트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제품 출시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